

“멧돼지 막아라” 광주·전남 양돈농가 비상

번식기 하루 활동반경 최대 100km... 돼지열병 발병 한달 농가 불안 전남 3만여마리 서식 추정 속 예산 핏계 철제 울타리 설치 21% 불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 한달째를 맞아 야생멧돼지를 타고 확산하면서 광주·전남 양돈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야생멧돼지들이 번식기인 11월을 앞두고 몸집을 키우기 위한 먹이활동을 하루 최대 100km 이르는 활동 반경을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멧돼지의 농가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태에 그치고 있다.

17일 환경부 야생동물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1㎢당 4.9마리씩 총 3만

3000여 마리의 야생멧돼지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1만 5000여 마리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개체수 증가에 따라 포획된 야생멧돼지도 크게 늘고 있다. 전남에서 가동포획단 활동과 포획 틀을 통해 공식적으로 잡은 야생멧돼지는 2016년 2646마리, 2017년 4357마리, 2018년 5564마리, 올해 8월 기준 3150마리 등이다. 광주에선 2016년 119마리, 2017년 214마리, 2018년 126마리, 올해 9월 기준 162마리가 잡혔다.

이들 멧돼지는 먹이를 찾아 민가는 물론 돼지 사육농장 인근으로까지 출몰하고 있다는 게 양돈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돼지사육농가 주변에 1.5m 높이로 철제 철조망을 두르는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전남 지역 양돈농가의 설치율은 2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기준 전남도내 양돈농가 520여 곳 중 21%인 110곳에만 철제 울타리 설치 자금을 지원했다. 철제 철조망은 야생멧돼지의 접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원인 중 하나로 야생멧돼지가 지목되자, 임시방편으로 자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멧돼지 기피제 1692t을 양돈농가 주변에 살포하고 1억 7000만원을 들여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추가 구입하는 등 멧돼지의 농가 접근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남도의 조치만으로는 야생멧돼지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발정기를 맞은 야생멧돼지에겐 기피제 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야생멧돼지의 넓어진 활동 반경도 경계 대상이다. 이범기 광주전남야생생물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야생멧돼지는 하루평균 15km 정도 이동하지만, 10~11월께 번식기가 되면 하루 최대 100km까지 이동한다"면서 "특히 호기심이 많은 야생멧돼지의 특성상 교미대상을 찾기 위해 주택, 둔사 등에도 자주 출몰하는 만큼 예방차원에서라도 야생멧돼지 포획과 차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버 됐다” ‘대도’ 조세형 항소심 재판 선처 호소

‘대도(大盜)’에서 좀도둑이 된 조세형(8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버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 2심 1회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을 했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거주자들이 의혹한 틈을 타 담을 넘고 방범창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재판부에 변명할 면목도 없다”며 “특히 아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아버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을 때는 어리석어서 오로지 절도만이 생계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는 내 나이도 그렇고 CCTV가 발달해 예전 범죄 행태로는 범행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반성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사치스러움이 폭로되고, 조씨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반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의 길에 빠졌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남뉴스

고장 표류 낚시어선 완도해경, 신속 구조

완도해양경찰이 해상에서 표류 중인 낚시어선을 신속하게 구조해 인명 피해 등을 막아냈다.

17일 오전 7시 40분께 완도군 청산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낚시꾼 등 4명이 타고 있는 낚시배 S호(2.82t)가 표류하고 있다고 해경에 신고를 했다. 완도해경은 신속한 출동·조치를 통해 배에 타고 있던 4명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S호 선장 A(65)씨는 여서도에서 낚시활동 후 석장리항으로 입항하던 중 기관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어선안전조업급을 경유해 해경으로 구조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 등을 현장에 출동 시켜 오전 8시 20분께 배에 타고있는 4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S호를 예인해 완도군 석장리 선착장에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내가 캔 고구마 어때요?” 17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마을 텃밭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심어 놓은 고구마를 캐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무면허 음주사고 베타남인 검거

무면허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한 베타남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17일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베타남인 A(35)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해 하다 B(여·54)씨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화물노조 오늘 경고파업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이하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화물연대는 광주시 광산구 물류업체 ‘GLS’, 기사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목포 용당부두 등에서 파업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3년간 일반차량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 달리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

장되지 않아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 과적,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운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또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안전운임제’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며 “적정 안전운임을 정정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눈썰미 좋은 은행원에 딱 걸린 보이스포싱

경찰, 피해 막은 2명에 감사장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의 한 은행에 70대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할머니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평생 모은 30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은행원 A씨는 보이스포싱(전화금융사기)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동부경찰서 직원들을 만난 할머니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보이스포싱이라고 설명한 끝에 피해를 막았고, 할머니는 거듭 감사인사를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광주의 또 다른 은행지점에선 은행원 B씨의 기지로 보이스포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직원 B씨는 C(36)씨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부친 거액 1900만원을 한꺼번에 찾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포싱 조직원과 20만원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송금까지 해주기로 약속했다. C씨 계좌로 들어온 돈은 피해자 2명이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한 보이스포싱에 속아 가족에게 보냈다고 생각한 돈이었다.

동부경찰은 A씨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보이스포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도박자금 마련하려 전 여친 집서 고가 브랜드 가방 ‘술쩍’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가 브랜드 가방을 훔친 20대 경찰서생.

○··1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구찌와 디오르, 루이비통 등 고가 브랜드 가방 3개(1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출근한 틈을 노려 사립 당일부터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경찰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훔친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범행을 시인.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광주문화신협 ☎ 1644-7990